“전쟁은 계속 중…결국 모든 인간은 불쌍하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근형 연출

광주 문예회관서 21~23일 공연
한국·이라크 등 배경 4개 에피소드
“광주 배우들 연기 참 좋아 기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립극단 제 18회 정기공연 무대에 오르는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한 장면.

“우린 모두 전쟁 중이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에 죽어야 하는 우린 모두 군인이라고. 아, 난 왜 자신이 없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아, 왜 난 죽는 걸 택해야 하죠. 아 어쩌다 이렇게 된거죠?” “이원재 총버려!” “육군 병장 이원재 실탄 장전 이상 무” “탕! 타탕!”

군복을 입은 배우가 바닥에 쓰러진다. 또 다른 군인 복장을 한 배우들이 쓰러진 군인에게 총을 겨누고 서서히 다가간다. 배우들이 벽면에 설치된 거울을 바라보며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습이지만 실제 무대 크기에 맞춰 연습실 바닥에 그려진 동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밟아간다.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하는 게 어려울 법도 하지만, 배우들의 눈빛과 발성은 실전을 방불케 한다.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21일부터 23일(21~22일 오후 7시30분·23일 오후 3시, 7시30분)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이는 박근형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연습 현장 모습이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2016년 남산예술센터 초연 당시 매진을 기록하며 연극계 최대 화제작으로 떠오른 작품이다. 이후 페스티벌 도쿄 2016 공식 초청작, 제53회 동아연극상, 2016 공연베스트7, 올해의 연극3 선정 등 주요 연극상을 휩쓸었다.

지난 11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 박근형(58) 연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 작품을 광주에서 꼭 한번 연출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도시들 저마다 아픔을 갖고 있지만, 광주는 특히 5·18이라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곳인 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얘기다.

작품은 2022년 대한민국과 1945년 일본 가고시마, 2004년 이라크 팔루자, 2010년 서해 백령도 등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한 네 개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쟁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무대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젊은 탈영병과 일제 말기 가미가제 특공대가 된 조선인, 이라크에서 미군 식품업체에 배달하다 납치된 민간인, 서해에서 선박 침몰로 목숨을 잃은 해군들의 이야기가 교차한다.

박 연출은 한국 연극계에서 손꼽히는 연출가다. 1999년 ‘청춘예찬’으로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동아연극상 작품상 희곡상 등 그 해 연극계 모든 상을 휩쓸며 평단과 관객에게 이름을 알렸다. 대표작으로는 ‘경숙이, 경숙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만주전선’ 등이 있다. 현재 극단 골목길 예술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연극원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박근형 연출

광주에서 연출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공연팀을 꾸려 광주 연극 무대에서 3~4차례 정도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광주연극계와도 친분이 있다고 했다.

“1986년 정도엔가 서울에 올라온 광주 출신 배우들과 ‘귀향’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지금은 사라진 한미쇼핑에서 공연을 했었다. 당시 동료들 중 한 명이 지금 예술의 거리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윤여송씨다.”

광주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추게 된 박근형은 광주 배우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공연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정이형·홍현선·양동진·신은수·노희설·고난영 등 20여명의 배우가 참여한다.

“배우들이 좋다. 특히 중간층 배우들이 참 좋더라. 연기는 물론 연기에 대한 태도가 특히 좋았다. 아울러서 배우들 사이에 ‘앙상블’이 좋아 기대가 많다.”

작품은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과 배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어우러져 극적 재미를 주고 음악과 자막 등 다큐멘터리적 요소는 현실과 연극적 환상을 넘나드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번 작품의 무대는 마치 ‘빈공간’과 같다. 서로 다른 4개의 시공간이 무대 위에서 오고가는 만큼, 무대 디자이너인 박상봉씨는 세트를 지우고 공간을 두고자 했다. 누구의 집도. 군대의 어느 곳도, 전쟁터도 아닌 마치 빈공간처럼 무대를 꾸몄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장치, 의상, 소품도 중요하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박근형의 얘기다.

이번 작품에서는 앞선 공연들과 달리 처음으로 전남북 사투리가 등장한다. 그는 광주에서 공연하게 된 만큼 4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현실을 표현하는 ‘탈영병’ 이야기 속에서 전남북 사투리를 사용한다 귀띔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불쌍하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전쟁은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분단이라는 상황, 또 지금의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상황도 그렇다.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사람이다. 작품의 제목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이지만, 서로 죽이고 죽이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사람이다.”

그는 이번 광주공연을 마친 뒤 ‘이장’과 ‘해방의 서울’을 각각 서울과 김천·거창 등에서 연출할 계획이다.

13세 이상 관람. 러닝타임 100분, 관람료는 1만원이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회진 시인 세번째 시집
‘상냥한 인생은 사라지고’ 펴내

“꽃 피운 나무 한 그루 혹은 꽃 피운 한 그루 나무에 대해 생각한다. 이 마음 저 먼 꽃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다.”

‘문학사상’ 신인상으로 등단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회진 시인이 세번째 시집 ‘상냥한 인생은 사라지고’(현대시학사)를 펴냈다.

현대시학 기획시인선으로 발간된 이번 작품집은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전체적인 작품의 경향은 견딤, 소박, 자연으로 수렴된다.

시인은 지난 2018년 몽골을 여행하며 기록한 글을 묶은 에세이집 ‘했으나 하지 않은 날들이 좋았다’를 펴낸 바 있다. 대자연의 초원을 걸으며 느꼈던 단상은 이번 시집에도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당시 시인은 “몽골 여행에서는 길을 찾는 경우가 절반이고 길을 잃는 경우가 절반”이라고 표현했다.

그 에세이의 잔영은 이번 시집 곳곳에 사유와 깨달음으로 남아 있다. 세상의 여러 길목에서 부딪히거나 만났던 이들과의 관계는 모두 시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매개로 작용한다.

“길거리 장에서 사 온 상추를 씻는데/ 겹겹이 잎사귀 쑥 고개 내민 너/ 10층 높이 밖으로 던질 수 없고/ 세제 가득한 개수대에 흘려보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키우기로 했다/ 너의 이름은 상추/(중략)/ 달팽이는 흙을 먹고 자라야 한다고/ 지인이 텃밭에 너를 놓아두고/ 돌아서던 날/ 너를 버린 것은 아니야/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던 어린 내가 생각나”

위 시 ‘상추’는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심상이 수채화처럼 형상화된 작품이다. 그 ‘상추’는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던 어린 나’를 떠올리는 기제이며 눈 덮인 들판에서도 가녀린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존재를 굳건히 지키는 이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은지 평론가는 “자연을 대하는 마음의 평온함을 만끽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어려움을 무던히 견뎌내려는 시인의 한결같음은 흡사 농사짓는 이의 마음과 같다”고 평한다.

한편 이번 시집은 2020년 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받아 출간했으며 강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일요일의 우편배달부’, ‘반하다 홀딱’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6월 6일까지 2차 연장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서울관에서 진행 중인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의 전시 기간을 2차 연장한다.

이번 전시는 작년 7월 21일 개막한 이래 지난10일까지 10만여명이 관람하며 국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전시는 당초 지난 3월 13일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3일까지 1차 연장했고 이번에 2차 연장을 통해 오는 6월6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기간을 연장하면서 운영 방식도 변경한다. 기존 회차별 100명씩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하던 방식에서 오는 14일부터는 온라인 사전예약 없이 1인 1매에 한하여 현장 발권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전시장 내 동시관람인원 100인 제한은 유지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첫 무대 16일 연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토요상설공연 무대가 첫 번째 막을 올린다.

오는 16일 오후 3시 너덜마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전통연희 ‘판펀핀’이 펼쳐진다. ‘판펀핀’은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판’과 신나게 논다는 ‘펀(fun)’, 신명에 꽂힌다는 ‘핀(pin)’의 뜻을 담고 있다.

공연은 풍물 판굿의 ‘구정놀이’를 비롯해 강령탈춤을 모티브로 한 창작연희 ‘무등산 호랑이’와 ‘탈놀이’, 관객과 함께하는 ‘놀이사물’로 진행된다. 정재일(대표), 신숙자, 오강식, 황인상, 임영석, 강미화, 김수연, 박시우, 조요한, 최지욱, 김돈수, 김나람씨가 출연한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을 교육하고 전통연희놀이를 보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토요상설공연은 16일 첫무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2회 공연된다.

23일은 무형문화재 초청 방성춘의 ‘춘향가’를, 30일에는 판소리 산조 무대로 김한아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정상희 판소리 동초제 ‘흥보가’가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